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2017.12.18.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적자산업의 하나가 바로 관광입니다. 올해도 한국은 120억 달러, 약 13조원의 관광수지적자를 내서 사상최대 적자 기록을 또 경신할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해 인구 5,200만 명의 한국에서 외국에 나가신 관광객은 연인원 2,05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1억2,700만명의 일본에서 외국에 나가신 관광객은 연인원 1,700만 명이었습니다. 한일양국 관광객 왕래기록에서도, 한국인의 일본관광은 일본인의 한국관광의 3배를 넘습니다. 올해 일본은 우리 돈으로 14조원 이상의 관광수지 흑자를 내서 사상최대 관광흑자 기록을 4년 연속 경신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2020년까지 외국 관광객 4,000만 명 유치의 목표를 달성할 기세입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관광 열기를 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외국인의 한국관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 세계인들께 내보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께서 국내 관광을 더 많이 하시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관광 가운데 일부를 국내관광으로 돌린다면, 국내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관광수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국내의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관광진흥협회장을 겸임하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야 지방의 관광진흥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지방은 인구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는 관광 활성화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구감소란 고정인구의 감소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유치로 고정인구 감소를 상쇄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동인구는 관광객입니다. 더구나 고정인구는 돈 씹씹이 즉 소비성향이 낮지만, 유동인구는 소비성향이 고정인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의 노력은 지방보다 훨씬 더 절실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관광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해 실행에 착수할 것입니다. 2022년까지의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5대 전략과제를 실천할 것입니다. 외국 관광객의 유치는 물론,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지난주 중국 방문중 리커창 중국총리께 중국에서 내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설정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리총리는 '적극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를 중국 측과 조속히 합의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1330콜센터가 외국어로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부터 러시아어와 동남아 몇 개 국어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9일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립니다. 이제 겨우 53일 남았습니다. 내외국인,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날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서비스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콜센터 외국어 서비스 확충을 늦추면 안 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관광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국가 관광전략회의'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족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범정부 협의체로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관광산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 협의체 의장인 제가 챙기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여러분께서 고민과 제언을 기탄없이 해 주시고 토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관광산업 진흥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